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병 철

2019년 8월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강 병 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강병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성봉 ①

위 원 박 정환 ①

위 원 김 대영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강 병 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예측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소재 3개 남녀공학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청소년용 우울척도, 사이버 불링 가해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사이버 매체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의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사이버불링 가해의 경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고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또한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학교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우울의 영향은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했으며,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우울 및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조절효과 확인을 통하여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담의 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관계적 공격성, 조절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7
3. 연구 모형	7
4. 용어의 정의	8
1) 우울	8
2)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8
3) 관계적 공격성	9
II. 이론적 배경	10
1. 중학생의 우울	10
1) 우울의 개념 및 특성	10
2) 청소년기의 우울	11
3)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	13
2. 사이버 불링 가해	14
1) 사이버 불링 가해의 개념	14
2)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특성	15
3) 사이버 불링의 실태	17
4) 청소년 사이버 불링의 유형	19
3. 관계적 공격성	21
1)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 및 특징	21
2) 관계적 공격성과 청소년 발달 및 적용	24
3)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	26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측정 도구	28
1) 우울 척도	28

2) 사이버 불링 가해 척도	29
3) 관계적 공격성 척도	30
3. 자료 분석	3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2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32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32
2.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34
3.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검증	35
1)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35
2)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분석	38
V. 논의,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4
Abstract	53
부록(설문지)	55

표 목 차

표 I.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척도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30
표 II-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II-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33
표 II-3.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s)	34
표 III.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37

그 립 목 차

그림I. 연구모형	7
그림II.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 효과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들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진달용, 2016). 특히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과 달리 21세기 초반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SNS와 스마트폰 등의 발전은 일반 시민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안성진, 20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 유인, 지속되면서 현실과 가상 현실이 뒤섞이고 있다(심홍진, 2014).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이 새로운 학교폭력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최숙영, 2015). 이렇듯 현실과 가상공간의 혼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카카오톡, 메신저, 워킹 앱(Working App)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변화는 물론 현실 공간으로부터 사이버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불링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 나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심홍진, 2014).

정보화 사회에 있어 SNS,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으로 발전하면서 오프라인의 현실공간에서 이루어 졌던 폭력의 관심이 온라인이라는 사이버상의 공간으로 진행되어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 불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조희정, 2012). 이러한 사이버 불링은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따돌림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전파가 빠르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적인 따돌림과는 여러 차이가 있다(조희정, 2012:1).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사이버(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이용률은 99.7%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및 정보 접근,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10대 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94.4%)과 레저활동(93.3%)을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시간 모바일 채팅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불링(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에 24시간 노출되고 있다.

김봉섭(2015)은 사이버 불링은 전통적인 불링과 관련해서 장소적 의미와 함께 도구적인 의미가 부가된 새로운 형태의 불링이다. 사이버 불링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빠른 전파속도를 지니고 있으며 익명성에 기반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불링(Traditional Bullying)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뛰어넘은 다양한 피해 및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즉, 불링이 사이버공간에서 변형되어 새롭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이버’에 내포된 정보통신기술을 불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이버 불링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공간이라는 장소적 의미와 사이버 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도구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Beran과 Li(2006. 27(2), 157-170.)는 “불링이 디지털로 가 버렸다(Bullying has gone digital)”고까지 하였다.

2018년 5월에 전국 초·중·고생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 폭행(10.0%)보다 더 높아 사이버 불링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재미나 장난, 스트레스 해소’가 23.8%, ‘특별한 이유 없음’도 12.3%로 드러나 36% 이상이 원인 없는 폭력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신체적으로는 불면증과 두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한다. 행동적으로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고, 사회적으로는 또래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봉섭(2015)은 중학생이 사이버 불링에 있어서 가장 문제 집단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청소년은 가족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기간이며 그들의 질이 다양한 행

위의 결과와 연결되고(Mesch, 2009), 동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회·감정적 기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Notar, et al., 2013). 특히, 중학생은 사춘기가 정점이 되는 시기으로써, 부모로부터 정신적·육체적 독립을 요구하는 시기이기에 또래에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인과 다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폭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국, 폭력은 상대보다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며, 한번 획득한 지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속된다고 할 때, 중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대상이 부재함에 따라 상대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김봉섭 2015).

최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와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등 전 세계 100여 명의 학자들이 1990년부터 수년간의 연구에서 2020년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심장병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희선, 이상기, 2013). 우울증상은 초기청소년기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아동청소년백서(200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40% 정도가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류기영(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중학교 남학생의 18.7%와 여학생의 26.2%, 고등학교 남학생의 14.3%와 여학생의 15.1%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유병률이 높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이 높다(김명식, 2008; 최인재, 2007)는 것을 보여준다.

오인수(2015)는 사이버 불링이 심리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심리적 특징을 우울이라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불링을 가해한 학생의 경우 높은 우울을 보인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Beck의 우울 인지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계 및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다(Beck, 1967). 가해 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Graham & Juvonen, 1998), 자신과 세상 및 미래에 대해 암울한 관점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성향이 지속되어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울은 내면화 문제의 위험과 더불어 불안, 외로움, 자살행동 및 신체 증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Nixon, 2014).

공격성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해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뒷말이나 소문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뉜다. 외현적 공격성은 공격의 형태가 외현적으로 표현이 되어 행동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래나 어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며 또래 및 친구관계의 규범에 맞지 않는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의 형태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공격의 표현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또래나 어른들의 비판을 덜 받기 쉬운 상황이 놓이게 된다. 외현적 공격성은 사회적 능력이 점차 발달하는 아동기 후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서미정, 2011; Brame, Nagin, & Tremblay, 2001)과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능력이 발달하는 중학교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드러나고 있으며(이홍, 김은정, 2012; Tiet, Wasserman, Loeber, McReynolds & Werner, 2001) 발달주기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시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비율이 높아진다.

예전에는 외현적·신체적 공격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관계적 공격성 연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학교폭력 관련 통계 수치에서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전년 대비 낮아지고 신체적 폭력은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 충돌은 오히려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실제로 은밀하고 간접적인 유형의 또래 괴롭힘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성(한국교육개발원, 2018 ; 한나, 이승연, 2018)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이나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혹은 은근한 따돌림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이 일상에서 흔한 공격성임을 알 수 있다(이종희, 2012).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 중에서 또래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간접적 공격성을 의미한다(Bus & Pery, 1992). 최근의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또래를 밀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보다는 나쁜 소문 퍼뜨리기, 헐담하기, 은근히 소외시키기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이러한 관계적 공격행동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격대상에 미치는 그 심리적 피해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집단따돌림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이력다툼에서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을 대리학습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

해 볼 때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Crick, 1996; Dodge, Bates, & Petit, 1990).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사이버 매체 사용과 관련된 측면만을 주로 연구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게임몰입, 인터넷 중독 등 사이버 매체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Chang et al., 2015; Kim, & Seo, 2012). 이는 사이버 매체의 사용량이 많은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 게임이나 SNS를 통한 채팅 등 사이버 불링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환경에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hao & Yu, 2017).

반면, 사이버 매체 사용시간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다소 덜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몇몇 연구자들(Kim, & Seo, 2012; Park & Park, 2016)은 사이버 매체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반면, 일부 선행연구(Cho & Yoo, 2017; Nam & Kweon, 2013)에서는 이 둘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버 매체 사용량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화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매체 이용시간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을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겪고 있는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감소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우울 증상을 가질 때 또 다른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20배 이상 증가하고(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이 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Malmquis, 1977; Chilesetal, 1980),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은 청소년들이 자주 경험하는 정서·행동 문제로, 이 시기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적응을 심각하게 방

해할 수 있다(유은애, 2008). 더욱이 초기 청소년기 중학생의 우울증상은 학업수행,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습득을 방해하게 되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다시 우울,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 영역의 문제는 행동적으로 쉽게 눈에 띄는 외현화 문제와 달리 외적으로 뚜렷하지 않아서 향후 반항적 행위, 약물남용, 학습문제, 학교생활부적응, 과잉행동 등 외현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등 더 큰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박은정, 2005; 배주미, 2000; Rohde, Clake, Mace, Jorgensen & Seeley, 200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문제 중 대표적인 내현적 문제로 우울과 외현적 문제로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우울하거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중학생은 또래관계에서 빈번히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더 거부되는 악순환(vicious cycle)을 반복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6; Levy, Ayduk, & Downey, 201). 이러한 악순환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내재적 문제(Coper, et al., 198)가 동반될 수 있고 사회적 위축,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또래관계문제(Simpson, Rholes, & Philips, 196)도 발생할 수 있어 중학생의 심리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이나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관계적 공격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없지만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미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여 상호작용효과의 유의미함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변인간의 관계에서 조절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 가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 영역인 우울과 관계적 영역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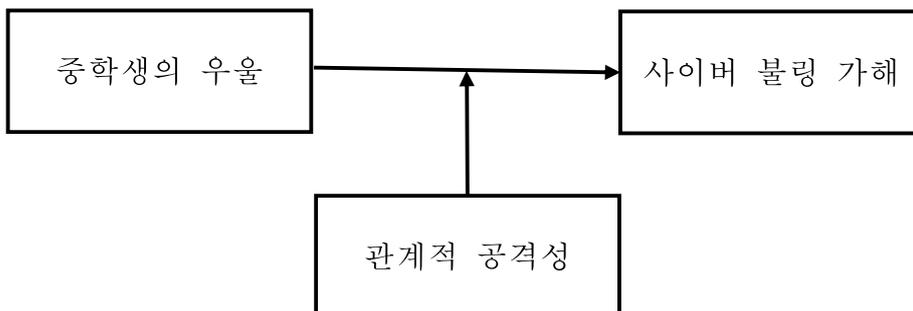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

가설 1.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모형



그림I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울

Watson과 Kendall(1989)은 우울의 정도에 따라 침울한 감정에서부터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우울은 우울한 기분이 공포, 분노, 죄의식, 혐오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 무력감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심리적 현상이다(김성일, 정용철, 2001). 중학생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와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 CES-DC)를 전귀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이란 인터넷 공간이나 온라인 내 블로그, 인스턴트 메시지, 혹은 MySpace나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ites)를 통해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Conn, 2014).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의 “괴롭힘(bullying)”과 다르게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 공간에서 24시간 계속해서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Willard, 2007).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arroll(2008)이 개발하고, 김경은(2011)이 번안한

Bullying/Victimization Questionnaire(BVQ)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가해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3)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외현적 공격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평판이나 위치를 손상시키는 공격성으로, 사회적인 배척이나 악의적 소문, 관계조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다(Leff, Wasdodo, & Crick, 2010).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와 Frick(2004)가 개발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또래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를 사용한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만 측정해서, 이중 관계적 공격성만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와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중학생의 우울

1) 우울의 개념 및 특성

우울은 개인이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으며 활동 수준이 낮고 비판적이며, 자기 비판적인 사고로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슬픔, 외로움, 무력감, 침울함, 무가치함 등을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장애이다(Pfeiffer & Davies, 1997). 우울은 단순한 슬픔, 울적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 무력감 등 심각한 정서장애까지 광범위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또한 우울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정 정서 중의 하나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측면에서 그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인간의 전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 1967).

Seligman(2002)은 우울이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서적, 심리적 장애이며 감기와 같이 흔한 증상이라고 한다. 즉, 우울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흔한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울의 정도가 심해서 오래 지속되어 병적으로 진행된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태희(2011)은 병적인 우울은 정상적 우울에 비해서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의욕이나 활력이 감소하게 되어 학습, 가정, 직업, 또래관계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직무마저 포기 하

게 되며 자신이 무능하거나 열등하다고 지각하게 되는 등, 자괴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울의 요인은 학자나 이론에 따라 다양한 측면과 기준에서 분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울을 유발시키는 문제들이 개인내적 요인의 문제인지 그리고 외적인 환경요인의 문제인지에 따라 Beck(1967)의 인지적 관점과, Billings와 Moos(1985)의 사회-환경적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Beck의 인지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지 도식이 우울의 촉발요인인 동시에 유지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 인지 도식을 하고 있으며 이 부정적 인지 도식 때문에 곱해된 정보처리를 한다고 본다. Billings와 Moos(1985)의 사회·환경적 관점은 개인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우울한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삶의 상황이 우울을 촉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측면이다. 김태희(2011)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는 개인의 우울 정서와 관련 하여 두 가지 주요 범주의 정신과적 진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우울 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의 진단 범주라 할 수 있다.

Beck(1967)은 우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우울은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동반한다. 이는 우울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슬픈 느낌, 외로움, 허무함 등을 겪는 반면, 흥미와 기쁨은 상실하게 된다. 둘째, 우울은 인지적 증상을 동반한다. 이는 우울한 사람은 특이한 인지적 증상을 나타낸다. 자기비난이나 자기비하를 하며 죄의식, 무가치감, 집중력 등이 저하되며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세계관, 미래에 대한 인지적 왜곡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우울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은 체중감소, 체중증가, 식욕감퇴, 불면증, 피로감 등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낸다(Beck, 1967).

2) 청소년기의 우울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의 전조 현상으로 우울 발달 단계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김교현, 2004). 김현순(2008)은 청소년기의 우울은 저하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결핍, 슬프거나 공허한 느낌, 피로나 활력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절망감,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 등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러난다. 이는 수면장애, 식욕과 체중의 증가나 감소, 정신운동성, 초조와 지체와 같은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증상들로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동기부터 우울이 나타나는 경우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증가된다(우희정, 최정미, 2004).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 달리 자살시도, 정신증 등 우울증의 임상증상들이 청소년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공포, 불안, 행동장애, 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나타난다(우신애, 2009).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청소년 우울을 증가시킨다(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여러 가지 비행 또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출, 도벽, 성적 저하, 공격적인 행동, 부모에 대한 반항, 주의 집중 곤란 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박병금, 2009). 최근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폭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의 심리적 속에는 우울이 잠재된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다(심혜원, 1999).

청소년기의 우울은 비행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우울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청소년 우울의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은 급변하는 신체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부모에게서 독립을 익히는 특징적인 발달 단계에 있다. 이에 청소년 우울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이며 변화무쌍한 특징을 보인다. 둘째, 아동·청소년기는 성인의 우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더 발달하고 내성적인 집착을 하기 보다 여러 가지 표현된 행동으로 그들의 우울을 나타낸다. 셋째, 결석, 반항,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비행행동을 통해 우울을 위장하는 경향이 있다(이아름, 2013).

우울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중 가장 빈번한 문제다(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2013).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증 발생비율은 성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약 35%, 여학생의 약 48%가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며, 절반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조맹제, 2001).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비롯하여 자살, 약물남용, 사회적 기능의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ield, et al., 2001).

정신 건강 중에서도 경조증, 강박증, 우울증, 히스테리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 등, 2006). 따돌림 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가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 돼 왔으며 학교 폭력의 유형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 행위가 가장 심각하며, 사이버 불링의 핵심은 따돌림 행위라는 점에서(이창호, 이경상, 2013; 가상준 등, 2013) 사이버 불링도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긴장이론에서도 불안, 우울, 좌절과 같은 부정적 긴장이 피해자의 비행 행동과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타인과의 관계형성 요인이 분노나 우울 등의 감정을 매개 변수로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폭력과 같은 다양한 비행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Hinduja & Pachtin, 2007).

3)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사례를 보면 우울은 사이버 가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권문자, 2013). 우울이 비행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들을 보면 Hinduja 등 (2007)의 연구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피해자가 전통적 불링을 당한 학생보다 이탈행동이나 학업부진 등의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하고, 나아가 이탈행동 유발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zerolle 등(2000)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분노,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폭력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비행행동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관계에서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들은 불안, 초조해하다 점차 반사회성이 나타나고 공격적 성향으로 변모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를 닮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등을 통해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평가를 통하여 불안이 커져서 자신 위생도 급격히 나빠진다(김희수, 2003).

지금까지 확인한 사이버 불링 관련 연구들을 보면 연령에 따른 사이버 불링 가·피해 경험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중형(Curve liner)의 형태를 띠고 있다. Willams와 Guerra(2007)가 미국의 5학년, 8학년, 11학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학년 때 가장 낮은 사이버 불링 피해(4.5%)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학년에서 가장 높았으며(12.9%), 11학년에서는 다시 떨어지는(9.9%) 패턴을 보였다. 결국 사이버 불링 피해가 가장 많은 학년은 7학년(중학교 1학년)과 8학년(중학교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이버 불링 가해

1) 사이버 불링 가해의 개념

Olweus는 ‘불링’을 ‘힘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적인 행동의 한 부분이고,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Olweus, D. Bullying at school. 1993). 김은경(2012)은 ‘사이버 불링’이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청소년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화매체를 매개로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욕설,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통해 허위정보나 소문을 퍼뜨리기 등 간헐적 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방송인의 다이안 소이어(Dianes Sawyer)는 사이버 불링 현상을 일컬어 “감정의 급소를 찌른다”고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이버 불링은 “기술에 의한 사회적 테러”로 인식된다. 학문적으로 사이버 불링이란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전자 기기를 이용해 자신을 쉽게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

복적이고 일정 시간 동안 해하는 의도적 공격 행위”(Slonje & Smith, 2008) 또는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의 이미지와 문자, 웹 페이지, 블로그, 카톡방, 토론장,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Patchin & Hinduja, 2012)으로 정의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 법안에 의하면 사이버 불링은 “반복적이고 적대적인 가혹 행위를 위해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명시되어 있다(메간메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 2008).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사이버매체를 통해 욕설과 겁박, 괴롭힘을 해하는 행위와 SNS공간에서 폭언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누설하는 것”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으로 정의한다.

2)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특성

사이버 불링의 행위자 범주를 구분한 연구에서 그 구분 방식은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겸 피해자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자는 소수이며, 전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피해자 역시 소수이며, 사이버 불링 관련 당사자의 대다수는 공격을 받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들이다(임상수, 2011). 가해자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기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두른 가해자’가 되고 이러한 익명성으로 사이버공간은 사회적 실재감도 낮아지고 탈육체적 자아가 강하게 반영되어 괴롭힘이나 불링의 행동 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Kowalski et al., 2012).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공격 대상과 관계된 그 순간부터 영향력을 발휘했다(Himduja & Patchin, 2012).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은 힘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공격 에너지의 창구로서 사이버 불링을 한다. 또한 사이버 불링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애착이 높고 익명성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통제력 부족과 공격성을 드러내는 비율이 높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몇몇 사람들은 사이버 불링을 함으로써 만족감,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얻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판타지를 드러내기 위한 출구로 사이버 불링을 하기도 한다(Kowalski, Limber

& Agatstin, 2008). 이를 근거로 사이버 불링을 하는 청소년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천사(vengeful angel), 힘을 갈망함(the power-hungry), 나쁜 소녀(mean girl), 우연한 사이버 불링 가해자(the inadvertent cyber bullies)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김은경, 2012).

사이버 불링 가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전통적인 불링과 함께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장치 및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폭력이나 절도, 왕따 등을 직접 피해자에게 가하면서 부수적인 방식으로 사이버 불링을 이용한다(Hinduja & Patchin, 2012). 청소년에게 사이버 불링은 전통적인 학교폭력에 부가적 방식으로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조운오, 2013),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오프라인 불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오세연·곽영길, 2012). 이러한 특성들로 사이버 불링은 전통적인 불링에 비해 피해만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오히려 피해·가해가 중첩되는 비율이 많아진다(Mishna et al., 2012).

Gradinger, Strohmeier, 그리고 Spiel(2009)은 사이버 불링 가해 특성의 주요 요인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고의로 일어나는 의도성이다. 둘째,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는 반복성이다. 셋째, 피해자가 해를 입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넷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인태(2012)는 전통적인 집단 괴롭힘이나 다른 사이버 불링 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비대면성으로 이전의 괴롭힘과 다르게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따돌림이 지속된다. 둘째, 익명성과 낮은 사회적 실재감, 탈육체화된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따돌림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기 때문에 게임과 채팅에 끼워주지 않는 비언어적인 형태의 사이버 따돌림으로 나타난다.

덧붙여 지속성, 반복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불링 역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지배와 통제”가 필요하고, 동시에 가해자-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도 범죄 특성으로 필요하다(Hinduja & Patchin, 2007). 오프라인에서는 가해자가 나

이가 많고, 힘이 더 세고, 물리적·신체적으로 더 강할 때 공격행동이 일어나겠지만, 사이버 불링에서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 사용능력에 따라 괴롭힘 수준이나 정도가 달라지고, 거짓 정보의 파급성이나 신속성, 시각적 충격, 익명성 정도가 달라지고, 거짓 정보의 확산성이나 신속성, 시각적 충격, 익명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조희정, 2012).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가 가진 특성에 대해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사이버 불링에는 학교폭력의 경우와 비슷한 행동적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흡사한 것처럼 보여 진다.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 폭력의 주체가 되거나 다른 문제 행동 즉, 고의적인 재산파괴, 경찰서 출입, 신체적인 폭행 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Ybarra & Mitchell, 2004b).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은 술·담배를 자주 이용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의 사이버 불링 경험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가해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이는 집단이 8학년생이었는데, 그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다른 사람을 사이버 불링 했다(Kowasaki & Limber, 2006). 피해 청소년과 피해-가해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가해-피해 청소년들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사이버매체 이용시간이 피해청소년에 비해서 3배가량 더 많았다(Ybarra & Mitchell, 2004).

3) 사이버 불링의 실태

사이버 상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Wolak과 그의 동료들(2007)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폭력 피해자의 43%는 가해자를 알고 있고, 57%는 단지 온라인에서만 접촉했던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owalski와 Limber(2006)는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48%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Ybarra, Mitchell, Finkelhor 그리고 Wolak(2007)은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의 비율이 12.6%에 이르고, 피해 청소년의 10.4%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가해자가 각각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1, 95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8.3%가 사이버 불링 하위 유형 중 하나 이상의 가해 행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하위 유형별 실태를 보면, 사이버배제(8.7%), 사이버비방(8.4%)등의 순으로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적은 경험이지만 사이버갈취(0.9%), 사이버 성폭력(0.99%), 사이버 스토킹(1.8%) 등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연 2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는 사이버 불링 실태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1%였으며, 이중 사이버 불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였다.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사이버 불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불링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Lloyd, Down & Marx, 2012). 하지만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dams(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이버 불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여자 25.8%, 남자 16%) 주로 여학생이 사이버 불링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okunage(2010)의 경우에도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사이버 불링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외국의 연구진들은 물리적 힘이 필요치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도 쉽게 사이버 불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은 7:3정도의 비율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남자들의 폭력성이 발현된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도 사이버 배제(여학생 61%, 남학생 39%)와 같이 소극적 형태의 사이버 불링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가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주대학교 정용은 교수팀(2014)의 조사에서는 남학생(n=330, 14.2%)이 여학생(n=113, 5.1%)보다 사이버 불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팀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남학생(16.1%)이 여학생(8.1%)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디어의 불건전한 이용과 사이버 불링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남학생들이 미디어의 불건전한 이용에 많은 연관이 있어 남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Rivers와 Noret(2010)은 남학생 가해자는 신체적 공격을 온라인의 형태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여학생은 인기가 없는 여학생을 앞으로의 또래관계에서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온라인을 사용하는 등, 친구관계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이버불링을 하기도 한다고 제안하였다.

4) 청소년 사이버 불링의 유형

사이버 불링의 유형 구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특징에 따라 유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학자들은 그 유형을 분류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학자마다 그 정의와 유형구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illard(2006)는 사이버 불링을 플레이밍, 괴롭힘, 명예훼손, 위장하기, 아웃팅, 소외와 배제, 사이버스토킹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플레이밍(flaming)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성나게 하거나 무례하고 상스러운 메시지를 온라인 그룹에 보내거나,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플레이밍을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어적 공격 형태인 욕설, 비방과 같은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지칭하고 있다(구교태, 2007).

둘째, 괴롭힘(harassment)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플레이밍과 비교하면 사이버 괴롭힘은 오랜 기간 동안의 일방적인 공격 형태로 적어도 한 명의 공격자와 한 명의 타깃이 있다(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셋째, 명예훼손(denigration)은 온라인 게시판에 타인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 즉, 거짓 또는 잔인한 내용의 루머나 가십거리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메일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위장하기(impersonation)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그의 또래관계에 피해를 입히고,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척 한다. 피해자의 계정에 빈번하게 접근하여 부정적이고 무례한 대화를 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등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로 써낸다.

다섯째, 아웃팅(outing)은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창피하거나 예민한 개인적 정보가 폭로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소외와 배제(exclusion and ostracism)은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세계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사이버 배척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일곱째, 사이버스토킹(cyber stalking)은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협박 및 욕설 등의 내용을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채팅,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글이나 부호 등을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일탈행위이다.

임상수(2011)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 유형의 분류 기준을 구체적인 행태로써 단문문자, 사진 혹은 동영상 전송하거나 게시, 보이스 메일,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 공간을 통한 유형의 8가지로 구분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동영상 유포,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갈취,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배제, 플레이밍, 사이버 강제, 안티카페, 사이버 왕따로 구분하여 피해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사이버 불링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12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최숙영(2014)은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이미지 불링, 사이버 위장, 사이버 강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플레이밍, 사이버 폭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은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 불링 유형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3. 관계적 공격성

1)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 및 특징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심리적 손상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 혹은 동기이다(Morris, 1993). Quay와 Werry(1986)은 공격성의 형태, 즉 외견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 공격성을 표현하느냐,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공격성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내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Dodge와 Coie(1987)은 공격성이 드러나는 동기가 외부적 요인에 대한 반응인지,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에 따라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었다. 반응적 공격성은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으로 불리기도 하고,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의 극단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해를 가하는 분노·감정 표현적 공격성으로 불리기도 한다(Campbell & Muncer, 1992).

Crick와 Grotpeter(1995)은 여아들이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공격성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외현적 공격과는 달리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공격성으로, 사회적인 배척이나 악의적 소문, 관계조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다(Leff & Crick, 2010).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처음에는 여아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간주되었고(Crick & Grotpeter, 1995), 특히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생들에게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었다(김민정, 도현심, 2001; Crick, 1997).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의 남녀성차가 뚜렷하지 않거나(서미정, 2011 ; 이서란, 2014 ; Henington, Hughes, Cavel & Thompson, 1998),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은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Goldstein, Tias, & Boxer, 2002). 성차에 대해 일치된 결과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관계적 공격성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정도와 방법이 상황 및 문화 등의 요인들에 대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학교폭력의 하위영역인 ‘따돌림’ 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돌림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것이다(Olweus, 1993). 한국의 특징적인 따돌림 형태인 ‘왕따’ 에 대해서도 한 집단 내에서 둘 이상의 학생에 의해 한 학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구타, 폭행, 소외, 배척과 같은 부정적인 형태의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이춘재, 광금주, 2000).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따돌림은 힘의 불균형, 지속성, 반복성의 3가지 특성을 내세우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은 따돌림 현상을 이루는 여러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반드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내세우지 않아 친밀한 또래친구들끼리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단일 행동에 대해서도 일컬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은 공격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를 도구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심리적 역동이 더욱 초점이 된다(최지영, 배라영, 2014). 이때까지 관계적 공격성은 표면적,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적 공격성 또한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려는 의도적인 공격행동(Aronson, 1980)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동등한 또래친구관계에서 단회적, 일시적으로 드러난 관계적 공격성은 따돌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현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Buss(1961)에 의하면 ‘공격성’이란 대인 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행동라고 정의하였다. 공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격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다. 주로 Little, Jones, Henrich & Hawley(2003)의 견해에 따라, 공격성을 표출 유형 혹은 형태적 차원에 따라 분류한다.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두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 그리고 기능적 차원에서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분류한다. 이를 Dodge와 Coie(1987)은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통제 등의 특정한 보상을 위하여 일으키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강제하는 혐오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지향적인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가해 상황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서유형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최지영, 허유성(2008)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공격성이 어떤 조건 하에 허용되는지 학생 반응을 알기 위해 Choi와 Tichy(2003)이 사용한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학생 절반 정도의 의식구조가 가해자 편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신념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적 폭력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39%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했거나, 싫을 때, 괴롭혔으니 보복의 차원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고 소외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러 또래 간에 복수 차원을 정당화하고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형태는 달라도 공격성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유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rick와 Grotpeter(1995)는 관계적 공격성을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또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우정과 감정을 해하려는 행동으로 즉, 관계손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신체적 공격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배척하기, 말을 걸지 않기, 뒷말을 하기, 소문을 퍼뜨리기, 무시하기, 찌러보기, 우정철회하기, 또래 관계를 조작하기 등 또래 집단 내에서 타인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악의적 의도를 포함할 수 있어 꼭 간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더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이고 은밀한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 비난을 지각하고 두려워하며 공격적인 행동의 표출이 직접적으로 명백한 외현적 공격성은 점차 감소한다(Pellegrini & Long, 2002).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또래집단 내에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배제하거나 가습 혹은 루머의 대상을 만들어 주변인들에게서 관계적 공격성이 폭력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고, 구별하기가 힘들어 그 심각함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의 희생자가 된 학생은 상당히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으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우울과 또래거부, 또래관계의 문제, 외로움, 낮은 자존감, 정서적 고통 등이다(Crick & Grotpeter, 1996). 그런데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또래거부, 내현적, 외현적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공존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Crick, Casas & Nelson, 2002).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가해자도 관계적 공격성의 결과로써 또 다른 관계적 공격성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Crick & Grotpeter, 1995)고 밝혀져 악순환이 엄연히 존재한다.

2) 관계적 공격성과 청소년 발달 및 적응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성을 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시점이라 청소년기 이전에는 주로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장호연, 2017). 청소년기에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공격성향을 드러냈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박민정, 최보가, 2004; 이홍, 김은정, 2012).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 외현적 공격성은 줄어들고,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양상이 남녀 모두에게서 발

견되었고(최지영, 허유성, 2008), 관계적 공격성의 내용 또한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관계를 잃었을 때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본인은 사회적으로 안전하면서 상대는 사회적인 위기에 처하는 형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최현화, 2000).

청소년기는 특히 또래 관계의 의존성·동조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며, 또래 집단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능감을 발달시킨다(Parker & Asher, 1993). 더불어 청소년기의 주요 과제인 정체감 형성에서 또래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2007).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적응적으로 지내는 것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숙 및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인 배제와 소외감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체성과 정서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은정, 2007).

일반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래로부터 배척을 당한다(Cillessen & Mayeux, 2004).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배척,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해 더 우울하고,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지각하게 된다(Crick & Grotptrerr, 1995). 국내에서도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남학생은 학교수업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여학생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학교교칙을 준수하기 어려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정아, 2007).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이 항상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는 만큼 공격성을 가진 개인이 사회적 이해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격성을 가진 학생들과 반대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또래들에게 인기 있을 수도 있다(이승연, 2011). 이러한 차이는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의 차이에서 귀인 할 수 있는데, 이흥과 김은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인정과 호감에 대한 집착이 높을수록 주도-관계적 공격성이 높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긍정적인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 방편 중 하나로 관계적 공격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행동을 취하는 것이므로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이 오히려 높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실제로 관계적 공격성을 가진 개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공존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공격성에 대해 공론화하여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격성과 연관된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 성숙한 방법을 익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은 그 양상을 달리할 뿐 실제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게 된다. 또한 또래간의 관찰학습이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의 특성상 신체적, 외현적 공격 대신 관계적 공격성을 실제 행하는 것이 학습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8).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공격성을 이해, 표현, 해소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상담의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8).

김봉섭(201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사이버 불링을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인식해서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시기에 관계적 고립은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래관계로부터 배제 및 소외 되었다는 감정은 좌절과 불안,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온다. 가해자를 특징하기 어려운 사이버 불링의 특성상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감 또는 청소년기에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처럼 사이버 불링은 신체적·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관계적인 폭력으로 정신적·심리적 상해로 발휘한다(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6).

3)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

Vandenbosch & Van Cleemput(2008)은 청소년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또래를 오프라인에서는 불링의 목표로 삼지 않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사이버 불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며, 불링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하였다. 공격성으로 온라인 접촉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경험하는 피해 경험도 높아지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김경은, 최은희, 2012). 조아라 와 이정윤(2010)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

은 청소년들은 높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악성 댓글을 더 많이 달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낀다고 하였고, Wolak, Mitchell & Finkelhor(2007)는 적대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Suler(1996)는 사이버 공간과 공격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순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Young & Rodgers(1998)는 인터넷 상에서의 공격성과 현실에서의 공격성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Smith, Fisher, Russell & Tippett(2008)의 현실에서의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Li(2007)는 현실 세계에서와 사이버 공간에서 모순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는데, 김병석, 정은희(2004)는 실제공간에서는 폭언 및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오히려 공격성을 표현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이버 일탈 행동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전동일 외, 2008). 공격성은 타인의 괴롭힘을 예측하는 개인 요인으로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진 청소년 일수록 가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고(Olweus,1991), 사이버 불링의 경험으로 인한 공격성은 보복 행동으로 나타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진미선, 201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확률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600명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확률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례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이 학년별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고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서 표본 추출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중학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설문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2주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7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하고, 총 5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우울 척도

중학생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와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 CES-DC)를 전귀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5점부터 12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7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821로 나타났다.

2) 사이버 불링 가해 척도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arroll(2008)이 개발하고, 김경은(2011)이 번안한 Bullying/Victimization Questionnaire(BVQ)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가해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은(2011)의 연구에서 14문항 중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불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또래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질문에서 '친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라는 문구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거나, 놀리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위협한 적이 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5=7회 이상, 4=5-6회, 3=3-4회, 2=1-2회, 1=없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 가해를 연속선상에서 볼 것이므로, 가해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도 피험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설문 조사에 있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arroll(2008)의 연구에서 .90, 김경은(2011)의 연구에서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8로 나타났다.

3) 관계적 공격성 척도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 와 Frick(2004)가 개발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또래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를 사용한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차원을 포함한다(반응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주도적 외현적). 각 차원마다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만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 관계적 공격성만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나쁜 쪽지를 써서 돌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3=매우 그렇다, 2=그렇다, 1=조금 그렇다, 0=전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Marsee와 Frick(2007)의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영경(2008)의 연구에서 .88, 이하연(2014)의 연구에서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표 I 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85,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68,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877로 나타났다.

표 I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 척도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N=540)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10	2 4 6 8 9 11 15 17 18 20	.868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0	1 3 5 7 10 12 13 14 16 19	.877
관계적 공격성	20	전체문항	.885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회수된 600부의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과 미회수된 30부를 제외한 540명의 자료를 분석해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Ⅱ-1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자 50.0%, 여자 50.0%로 조사되었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33.3%로 조사되었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 가해간의 관계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Ⅱ-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540)	구성비율(%)
성별	남	270	50.0
	여	270	50.0
학년	1학년	180	33.3
	2학년	180	33.3
	3학년	180	33.3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그 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등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에서 0.7이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각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Ⅱ-2와 같다.

표Ⅱ-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관계적 공격성	2.27	.40	.885
사이버불링가해	1.58	.36	.821
우울	3.05	.57	.948

2.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1에서 사용되는 중학생의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 사이버 불링 가해,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I-3과 같다.

표 II-3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s)

	변인		관계적공격성	사 이 버 불 링가해	우울
1	관계적공격성	r	1		
2	사이버불링가해	r	.512***	1	
3	우울	r	.587***	.458***	1

* $p < .05$, ** $p < .01$, *** $p < .001$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사이버불링 가해의 경우 $r=.512$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p < .001$).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r=.587$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p < .001$).

3.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검증

질문지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 관계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이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Ⅲ에서와 같이 상호작용 항의 투입은 유의미한 R^2 변화량을 가져왔다. 이는 중학생이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관계적 공격성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분석결과와 회귀계수를 중다회귀방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II 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사이버 불링 가해가 증가되는 정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절변수의 대립효과(interference effect)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종속변수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상호작용 효과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배병렬, 2015)

1)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우울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때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I 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높은 집단은 관계적 공격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이버 불링 가해가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자 독립변인, 중재변인의 상호작용 사이에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인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리하

여 문제가 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 작용 항을 Z점수로 변환시켜 상호 덜 연관된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표준화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계수 표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 계수 표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계수 표의 주효과를 확인, 모형요약을 통해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분산분석을 통해서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대한 회귀식 [$F=88.230, P <.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계수 표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한 결과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공차 한계가 .10 보다 크며 , VIF 값이 10 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 계수 표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여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상호작용 효과($t=-4.944, p<.05$)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단순 주 효과를 확인하며,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 효과를 확인한다. 네 번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계수 표의 주효과를 확인하여 우울의 주 효과($t=8.740, p<.001$), 관계적 공격성의 주효과 ($t=6.442,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 모형요약은 R^2 변화량을 볼 때 우울는 26% , 관계적 공격성은 30%, 상호작용효과는 33%로 사이버 불링 가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에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t	VIF	ΔR^2	F(p)*
1	우울	.463	.512	13.825*** *	1.000	.262	191.128** *
	Constant	1.607		35.879			
2	우울	.336	.371	8.322***	1.525	.300	115.096** *
	관계적 공격성	.153	.240	5.393***	1.525		
	Constant	1.589		36.091			
3	우울(A)	.642	.709	8.740***	5.275		
	관계적 공격성(B)	.183	.288	6.442***	1.598	.331	88.230***
	상호작용항(A*B)	-.199	-.408	-4.944***	5.439		

* $p < .05$, ** $p < .01$, *** $p < .001$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표Ⅲ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상호작용 항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 = -.408$, $p < .001$),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기울기분석(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Ⅱ에서 제시하였다.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통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 후 분석한 결과 및 모형은 표

Ⅲ, 그림Ⅱ과 같다.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모형2단계에서는 조절변인 관계적 공격성을 투입하였으며,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모형3단계에서는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결합요인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beta = -.408$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Cohen, Cohen, West & Aiken(2003)의 위계적 회귀분석 해석기준에 의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 항의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얻으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가설1.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 가설이 채택되었다.

2)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분석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의 평균값(3.05)을 기준으로 평균 값 미만을 ‘저’ 집단, 평균값 이상을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관계적 공격성의 평균값(2.27)을 기준으로 평균값 미만을 ‘저’ 집단, 평균값 이상을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의 ‘고’, ‘저’ 집단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고’, ‘저’ 집단별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시각화한 확인한 결과는 그림Ⅱ와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저’집단, ‘고’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그림Ⅱ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이 ‘저’ 집단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저’ 집단($M=1.39$)이 ‘저’ 집단($M=1.52$)이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및 방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이 ‘고’ 집단에서 관계적 공격성 ‘고’ 집단($M=1.77$)이 ‘하’ 집단($M=1.60$)보다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이 높은 집단이 사이버 불링 가해 평균 차이가 0.17점으로 우울이 낮은 집단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평균 차이 0.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하여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hen et al.(2003)이 유형화한 상승조절효과와 대립조절효과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양수인 경우이다. 양 조절효과의 차이가 있다면, 상승 조절효과의 경우 조절회귀계수가 양수이고, 대립조절효과의 경우 조절회귀계수가 음수라는 점이다. 그 외에도 완충조절효과를 또 다른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완충조절효과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수이며, 조절변수의 회귀계수와 상호작용 항의 조절회귀계수는 모두 양수이다. Cohen, Cohen, West & Aiken(2003)의 위계적 회귀분석 해석기준에 의하면, 회귀식 3단계의 베타 값을 기준으로 상승조절효과(enhancing interaction effect), 완충조절효과(buffering interaction effect), 대립조절효과(antagonistic interaction effect)로 조절효과의 패턴의 유형화된다. 한편, 베타 값을 통해 Cohen외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조절효과의 패턴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는 '우울'은 .709, 관계적 공격성 .288, 상호작용 항(우울×관계적 공격성)이 -.408로 부(-)의 값을 가지므로 표 III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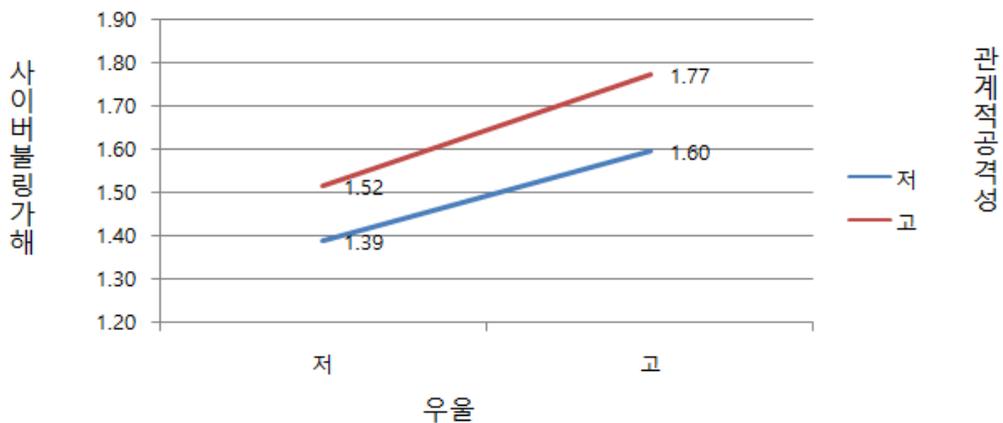


그림 II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V. 논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이버 불링 가해와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우울 및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의 영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우울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이선이, 김현주, 이여봉, 2006 ; 남상희, 권남희, 2013 ; 최진오, 2013; 이고은, 정세훈, 2014 ; 이창호, 2014 ; 최진오, 2016)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 불링 가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사이버 매체의 대중화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중학생이 사이버 매체의 사용을 높였고, 이는 결국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중학생의 사이버 매체 상의 문제행동이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성장의 속도에 비해 정서적·심리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청소년들이 내·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문제,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등 다양한 교육환경과 주변인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적·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부적응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황에 따른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박병금, 2007).

셋째, 청소년의 우울문제는 공격성, 폭력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우울을 표출하는 등 청소년기 우울은 문제행동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내외 청소년 비행연구에서도 우울이 남녀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동 및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쉽게 드러날 수 있다(유선미, 김정민, 김찬권, 2017).

넷째,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의 분석된 결과에서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결합요인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beta = -.408$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01$). 한편, 베타 값을 통해 Cohen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조절효과의 패턴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는 '우울'은 .709, 관계적 공격성 .288, 상호작용 항(우울×관계적 공격성)이 -.408로 부(-)의 값을 가지므로 대립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우울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때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중학생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평상시 중학생들이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과의 접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학습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개인은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타인의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행위를 학습한다(구교태, 2007).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우울 등의 심리적 갈등이 가정, 사회, 학교, 사이버공간에서도 증대한다

사이버 불링의 가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Frojd et al., 2008;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학교현장에서 우울 관계적 공격성을 호소하는 중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사들의 경우 먼저 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가해 정도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적응 등 학교적응의 하위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재학 중인 남녀공학 중학생 540명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조사대상자의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결과와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자가 편한 장소와 시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위한 응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무성의한 응답이 증가할 수 있다. 자기 보고식 측정들은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와 회상적 편향에 취약하며 (Pervin, 1999), 청소년 우울, 관계적 공격성 등은 같은 현상이라도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이버 불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즉,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가·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불링,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조사방법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심리적 영역인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밝혔지만,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사이버 불링 가해과 우울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차원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이 온라인 공간의 문제행동 중 하나인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우울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을 예방할 때 청소년의 우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밝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는 것에 의의가 존재한다. 그 동안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중학생의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사이버 불링은 국가나 문화를 넘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통신매체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Sakellariou, Carroll & Houghton,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문제 중 대표적인 내현적 문제로 우울과 외현적 문제로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간의 사이버 불링을 청소년 문화나 비행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여 사이버 불링 가해 관련 상담 및 교육에서는 우울의 처치로 충동, 불안, 무기력감, 대인관계의 상실 등을 포함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룸과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은 물론 중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자(2013). 울산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형태,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가족의사소통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길(2006).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은, 윤희미 (2011).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10(4): 133-159.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미영(2007). 학교체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287-314.
-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정보문화 이슈 리포트 13-01호).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김혜영, 민정식 (2014).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온·오프라인 폭력피해경험 및 소셜미디어 중독,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4), 323-333.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 63-74.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 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 류성진 (2013).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보**, 57(5), 297-324.
- 모정은, 오인수, 김연희 (2014). 초등학생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요인 검사문항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27(4), 131-155.
- 박성훈, 심현정 (2015).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8, 155-185.
- 박옥식(2015).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현(2008).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지역정보화**, 49, 50-57.
- 박주연, 김희화 (2013).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부모훈육방식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20(1), 25-46.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성동규, 김도희, 이운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57-83.
- 신송연, 장현석 (2013).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2), 3-33.
- 아영아, 정원철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12), 331-354.
- 안수빈, 이강이 (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4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7-154.
-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159-183.

- 오세연, 곽영길 (2013).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오태곤 (2013).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12), 207-215.
- 윤달희, 강현아 (2009).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일탈을 통해 실제일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4), 201-224.
- 이고은,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1(2): 129-162
-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사이버 불링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령군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3, 120-143.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성식 (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정보화정책**, 14(3), 3-15.
- 이성식 (2011). 청소년 매체이용상 비행에서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통합적 검증: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2(1), 111-135.
- 이성식, 황지영 (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73, 167-189.
- 이정기, 우형진 (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1), 215-253.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 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 14-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 임상수 (2013).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과 실: 학교폭력법의 사이버 따돌림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91, 107-125.
- 장신영 (2011). 청소년 사이버 일탈에 관한 연구: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263-281.

- 정문경 (2014).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73-93.
- 정완 (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3**(2), 329-359.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 645-663.
-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2**, 263-288.
- 정혜원, 박성훈 (2011).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189-207.
- 정혜원, 정동우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9**, 1-23.
-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조유진 (2008).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9**(5), 215-226.
- 조윤오 (2013).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3**, 305-327.
- 조윤오(2013). 사이버 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조주연, 김신영 (2010). 청소년 비행 결정요인 탐색: 자기통제력과 자기친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51-173.
- 조정실, 차명호 (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화해로 이끄는 절차와 대처 기술 가이드북. **서울: 학지사.**
- 조춘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안정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조희정 (2012).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대책.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진미선 (2016).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을 매개로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병완 (2003).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의 도덕 심리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교육**, 17, 103-117.
- 최민음, 금현수, 정은정, 김효은, 이정기 (2012).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간접적·공적, 직접적·사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375-402.
- 최숙영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6), 35-48.
- 추병완 (2003).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의 도덕 심리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교육**, 17, 103-117.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의 사이버 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4(4), 233-258.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문정, 한영선(2015).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91-411.
- 홍경선(2014). 사이버 불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부모의 사이버불링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47-372.
- Aftab, P. (2006). A parent's guide to cyberbullying. Retrieved October 28, 2015 from www.stopcyberbullying.org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oyama, I. (2010). Cyberbullying: What are the psychological profile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octoral dissertation, Baylor University). Retrieved from www.baylor.edu
- Avakame, E. F. (199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elf-control, and conjugal viol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physical violence

-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13(3),01–316.
- Bossler, A. M., & Holt, T. J. (2010).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victimization in the cyber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27–236.
- Boutwell, B. B., & Beaver, K. M. (201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ow self-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7(2), 174–209.
- Bryce, J., & Fraser, J. (2013). “It’s common sense that it’s wrong”: Young peopl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6(11), 783–787.
- Carroll, D. (2008). Cyb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ntana). Retrieved September 30, 2015 from scholar.google.com
- Cook, L. A. (2015). Cyber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Examination of potent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Retrieved September 1, 2015 from scholar.google.com
- Dooley, J. J., Pyżalski, J., & Cross, D. (2009). Cyberbullying versus face-to-face bullying: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review. *Journal of Psychology*, 217(4), 182–188.
- Erdur-Baker, Ö. (2010).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 Society*,12(1), 109–125.
- Gradinger, P., Strohmeier, D., & Spiel, C. (2009).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Identification of risk groups for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Psychology*, 217, 205–213.
- Görzig, A., & Ólafsson, K. (2013). What makes a bully a cyberbully?

- Unravelling the characteristics of cyberbullies across twenty-fiv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Children & Media*, 7(1), 9-27.
- Hamer, A., Konijn, E. A., & Keijer, M. G. (2014). Cyberbullying behavior and adolescents' use of media with antisocial content: A cyclic process model.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7(2), 74-81
- Toumbourou, J. W., & Catalano, R. F. (2012). Longitudinal predictors of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perpetration in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1(1), 59-65.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Hinduja, S., & Patchin, J. W. (2015).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Corwin Press).
- Jang, H., Song, J., & Kim, R. (2014). Does the offline bully-victimization influence cyberbullying behavior among youth?: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85-93.
- Juvonen, J., &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5.
- Katzer, C., Fetchenhauer, D., & Belschak, F. (2009). Cyberbullying: Who are the victims? A comparison of victimization in internet chatrooms and victimization in school.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1(1), 25-36.
- Khurana, A., Bleakley, A., Jordan, A. B., Romer, D. (2014). The protectiv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internet restriction on adolescents' risk of online harass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4(5), 1039-1047.
- Kim, E. J., Namkoong, K., Ku, T., Kim, S.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ame addiction and aggression, self-control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European Psychiatry*, 23, 212-218.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 Lattanner, M.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73-1137.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22-S30.
- Kowalski, R. M., &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 S13-S20.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12).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Oxford, England: Blackwell.
- Kowalski, R. M., Morgan, C. A., & Limber, S. E. (2012). Traditional bullying as a potential warning sign of cyber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 505-519.
- König, A., Gollwitzer, M., & Steffgen, G. (2010). Cyberbullying as an act of reveng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0(2), 210-224.
- Li, Q. (2006).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2), 157-170.
- Mathiassen, C. (2013). Bullying: Transformative potentiality? *Critical Practice Studies*, 14(2), 184-204.
- Mesch, G. S.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Menesini, E., Nocentini, A., & Calussi, P. (2011). The measurement of cyberbullying: Dimensional structure and relative item severity and discrimin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4(5), 267-274.
- Nixon, C. L. (2014). Current perspectiv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 adolescent health. *Adolescent Health, Medicine & Therapeutics*, 5, 143-158.
- R., & Menesini, E. (2010). Cyberbullying: Labels, behaviours and defini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0(2), 129-142.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Hemisphere.
- Runions, K. C. (2013). Toward a conceptual model of motive and self-control in cyber-aggression: Rage, revenge, reward, and recreatio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2, 751-771.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 Suler, J. (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 Willard, N.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Eugene, OR: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5(7), 1308-1316.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Middle Student's Depress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Kang Byong-Cheol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eong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predict and reduce the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confirming the moderating impact of relational aggression on depression and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There is a aim to derive a plan that can be done.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300 boys and 300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City,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The measurement tools used were the Depression Scale for Youth, Cyberbullying Scale, and Relative Aggression Scale.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tual use of cyber media by the subjects using SPSS WIN 24.0 program,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and major variables. Also,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were examin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 the control effect was tested by

introducing the interaction terms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of depression, cyber bullying,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cyber bullying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also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 correlation appeared.

Second,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ignificant i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control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In order to confirm the control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yber bullying,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tervention related to the cybe r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was predicted and prevented through the confirmation of the relational aggression as well as the specific and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deviation behavior related to the well and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intervention of counseling.

Key Words : Depression, Cyber bullying Perpetration Behavior,
Relational Aggression, Moderating Effect

설문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중학생의 우울이 사이버불링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숫자상으로 통계 처리되고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익명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응답요령(검사시간: 약 10분 내외)

1.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문항에 해당하는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영
 연구자: 강 병철
 E-mail: darkangel7777@nate.com

본인의 성별은?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
본인의 학년은?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나이	① 14세 () ② 15세 () ③ 16세 ()
사이버매체사용시간(인터넷, 스마트폰)	① 1시간이내 () ② 2시간정도 () ③ 3시간정도 () ④ 4시간정도 () ⑤ 5시간 이상 ()
사이버매체 사용공간	① PC방() ② 우리집() ③ 학교 () ④ 학원 () ⑤ 친구집() ⑥ 이동할 때()

관계적 공격성: 또래갈등척도(PCI)

★ 다음은 또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로, 각 문항 보기 중 자신을 잘 설명해주는 곳에 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④	⑤
2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한다.	①	②	④	⑤
3	나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①	②	④	⑤
4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④	⑤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①	②	④	⑤
6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	①	②	④	⑤
7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①	②	④	⑤
8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다.	①	②	④	⑤
9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쪽지를 써서 돌린다.	①	②	④	⑤
10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을 한다.	①	②	④	⑤
11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①	②	④	⑤
12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친구를 헛으려고 한다.	①	②	④	⑤
13	다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하면, 내가 인기 있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④	⑤
14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④	⑤
15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①	②	④	⑤
16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을 안 건다.	①	②	④	⑤
17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헛으려고 한다.	①	②	④	⑤
18	내가 누군가에게 소문을 퍼뜨렸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④	⑤
19	나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④	⑤
2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①	②	④	⑤

사이버불링 가해척도

★ 다음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미니홈피,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가해경험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	없음	1-2회	3-4회	5-6회	7회이상
1	나는 친구들과 인너넷을 하고 있는 동안 온라인 게임으로 다른 친구들 왕따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메일, 채팅, SNS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나 아는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인터넷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거나, 놀리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SNS)를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페이스북이나 웹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나 아는 사람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친구나 아는 사람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인터넷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위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협박하는 이메일(카카오톡 등 SNS)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비밀을 지켜달라는 글을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 SNS)로 보여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울척도

★ 다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걱정이 많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매사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의지할 사람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인생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잘되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에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이 잘못되면 나 스스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5	무엇이든 잘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아이들처럼 잘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 자신이 미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식욕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22	쉽게 잠들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울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슬프거나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